

## 미국내 한국학생들의 건강과 적응

최 은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목 차

I. 서 론	IV. 한국학생들의 건강과 적응
II. 국제학생들의 적응특성	V. 결 론
III. 국제학생들의 건강문제	참고문헌

### I. 서 론

미국의 대학내 소수 민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학생들의 비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내의 한국학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학생들의 유학대상국가 중 미국이 가장 많은 한국인이 유학을 가는 나라이다(문교부, 1985). 미국 대학측에서 보면 한국학생을 포함한 국제학생 수의 증가는 여러 대학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국제학생들의 건강과 안녕의 문제이다.

미국내의 대학에 국제학생들이 입학하기 시작한 것은 1784년부터이다. 초기에는 이런 국제학생들의 학업분야는 대부분, 사회과학, 인문과학, 예술 등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것이 변하여 국제학생들은 경영, 공학, 컴퓨터학 등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있다(Sharif, 1994).

미국대학내의 외국인학생증가는 2차대전후 생겨난 현상으로 1930년대만 해도 10,000명 이하의 외

국인학생들이 있었다. 이 숫자는 1968년까지 10만을 넘어섰다. 이렇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하던 국제학생수가 근대에 이르러 더 급증하면서 2000년대까지는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대학내의 외국인 학생 중 한국학생들은 5번째로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외국인 학생 중에서는 5번째로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집단이 한국학생들이다. 미국내의 외국인 학생은 여러 대학에 분산되어 있는 편이다.

미국대학 내에서의 국제학생증가는 이 학생들의 건강요구도에 대한 보건전문인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은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문제 외에도 문화적,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즉, 그들은 새로운 대학생활과 미국문화 이 두 가지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

Ebbin과 Blankenship(1988)에 의하면 외국인 학생들이 경험하는 건강문제는 대부분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고 심인성 신체증상(Psychosomatic)이

대부분이다. 이 국제학생들은 또한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이용에도 어려움을 가진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장벽 외에도 건강신념(Health Belief)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학생들은 심인성 신체증상의 원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스트레스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Akka(1967)는 국내 중앙아시아계 학생들이 미국학생들보다 더 많은 심인성 신체증상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외국인학생들의 문화적 윤리적 차이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행태와 관련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외에도 국제학생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평균적인 대학생 이상의 관심의 소지가 몇가지 있다. 미국측에서 볼 때 국제학생들은 외국문화의 대표자이며, 수입원이 되고, 외국정책과도 관련되어 있다. 3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는 국제학생들의 국적은 주로 서양국가들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동양,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제3세계에서 많은 국제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외국유학에 많이 동참하는 개발도상국들이다. 대학캠퍼스에서 국제학생들의 건강과 안녕에 위협을 주는 요소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새로운 사회관계형성, 사회적, 물리적, 문화적 환경에의 적응, 학업에의 적응, 재정문제 등이다(Sharif, 1994).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대학내 국제학생의 건강과 안녕의 맥락에서 국제학생과 한국학생의 건강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적응문제를 고찰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본고에서 제시되는 한국인의 건강 및 적응문제는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의 한국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미 국전역의 한국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 I. 국제학생들의 적응특성

국제학생들의 건강문제는 다른 문화권에서의 적응문제와 많은 관련을 가진다. 미국문화에 대한

정보는 매스콤을 통하여서도 여러나라에서 습득된 바 있지만 많은 국제학생들은 미국 캠퍼스에서의 생활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이한 언어, 관습, 사람 등은 국제학생들에게 일종의 혼란을 유발하는데 이런 혼란이 비교문화적 스트레스(Cross-cultural stress)라고 한다(Sharif, 1994). Lundstedt(1963)는 이런 혼란경험을 Cross-cultural shock이라고 했다. 본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차이가 클 때 이 문화의 충격은 크다.

### 1. U-Curve

국제학생들의 적응은 U-curve의 형태를 가진다 (Lynggaard, 1955). U-curve는 네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Spectator, involvement, coming to terms, preadaptation 등이다. 첫번째 단계는 여행자가 구경을 하듯이 거리를 두고 멀어져서 살펴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많은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여 홍분과 모험을 느끼는 시기이다. 두번째 단계는 수동적인 구경꾼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에 적극적인 참여자의 위치로 변화를 감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문화와 본국의 문화적 태도에 약간의 다른점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환멸이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다. 세번째 단계는 이전단계의 적응관계문제들이 평형을 이루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은 습관, 관습, 가치관을 심각하게 재평가한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본국문화의 세계로 되돌아가서 본국의 전통과 안정 속에 머물려고 한다. 다른 학생들은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새 문화에 대응하여 이 비교문화적인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다. Gullahorn과 Gullahorn(1963)은 학생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double U(W) curve로 이 적응단계가 계속된다고 했다.

적응의 정도와 속도는 학생의 학업완수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국제학생의 적응과

제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Sharif(1994)는 국제학생들의 일반적인 적응과제로 교육적인 적응, 경제적인 적응 그리고 사회 및 개인적 적응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적인 적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제도의 차이, 교육방식의 차이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언어적인 차이 등이 교육적인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어적인 어려움이다. 경제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은 대부분 국제학생들의 주된 학비출처가 자기 자신, 가족, 정부, 또는 본국의 다른 기관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이런 경제적인 제한은 또한 국제학생들의 돈관리 방법에 의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외에 정치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동나라 출신의 국제학생들은 정치적인 혼란이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방해한다. 재정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또다른 요인은 미국내 교육비 상승이 원인이 된다. 교육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타격을 얻을 때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불법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교육비 상승은 국제학생들의 다양성이나 교류를 제한한다. 사회적, 개인적 적응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제 3세계로부터의 국제학생들은 본국에서의 높은 사회적 위치에서 미국에서의 낮은 위치로의 변화에 따르는 적응도 문제가 되며 국제학생이 나이가 많은 경우 이러한 적응은 더 어렵다. 그리고 본국에서 주위의 인정과 관심에 의존하던 문화권에서 살던 학생에겐 이런 사회적 feedback이 없어지는 데서 오는 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제학생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보다 가족의 유대가 강한 문화권에서 자란 학생에게 이런 유대감 상실은 학생으로 하여금 미성숙상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감정적인 실망을 얻기 쉬우며 낯선 사람, 외부인이라는 느낌과 사회적 지지기반이 없어서 심각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종교적 관습이 강한 모슬렘국가 학생은 학교식당에서의 식사

에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Sharif, 1994).

## 2. 문화변용(Acculturation)

적응은 국제학생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Surdam 과 Collins(1984)에 의하면 국내의 국제학생의 적응은 미국인과의 상호작용, 영어능통 여부, 부모교육수준, 종교적인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제3세계에서 유학온 학생들 중 차별을 경험한 학생은 더욱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에는 Acculturation, Assimilation, Cultural pluralism 등의 이론이 있다. 문화변용(Acculturation)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집단의 사람들이 생소한 문화사회로 들어갈 때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본래의 문화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변용은 집단수준에서 문화적 변화가 개인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Teske 와 Nelson(1974)에 의하면 직접적인 대응이 문화변용을 가져오기 위한 우선조건이 된다. Owen(1988)에 의하면 국제학생들은 문화변용의 과정을 밟는다. 학생들은 이 문화변용의 한 부분으로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에 익숙해지게 된다. Owen의 히스파닉계 학생들의 요구도 조사에서도 문화적 갈등이 국제학생들의 건강문제를 가지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Tyhurst(1951)에 의하면 다른 문화에 놓여진 사람 또는 이주민들은 2단계의 문화변용을 거친다. 첫째 단계는 새로운 지역에의 도착후 2달간으로서 대체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느끼며 여러 활동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새로운 환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두번째 단계는 현재와 과거를 인식하는 단계로서 의심, 불안, 우울, 신체증상을 호소한다. Gullahorn의 W-curve는 문화변용과 재문화변용(reacculturation)을 포함한다. 문화변용된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문화변용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W-curve를 나타내는 적응과정이 형성되게 된다. 그런데 Torrey, Van Rheenan과 Katchadourian(1970)에 의하면 국제학생들은 아주

민같은 외국인으로서 연구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것은 국제학생들이 그 사회의 문화에 적응 한다기 보다는 특정대학의 학문적인 문화에 적응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화(Assimilation)는 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다(Teske & Nelson, 1974). 그러나 지역사회의 일원이 아닌 것이 문화변용의 과정을 저지하지는 않는다. 동화 과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문화변용과 다르다. 첫째 동화는 그 지역의 주된 집단(dominant group)의 수용(acceptance)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문화변용은 이러한 수용이 필요없다. 둘째로 동화는 개인의 주된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필요로 한다. 즉 동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주민이 편견 또는 차별적인 태도나 행동이 없이 숙주(host) 지역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Bogardus(1949)에 의하면 문화적 복수주의(Cultural pluralism)는 문화변용의 한 측면이다. 이것은 미국사회에서 그 예를 잘 볼 수 있는데 같은 국가 내에서 두가지 이상의 문화체계가 동시에 기능하는 현상이다. 즉 문화적 복수주의는 이주민들이 그들만의 문화특성을 개발하여 그 나라의 국민 생활에 문화적인 기여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 3. 한국인의 적응

미국내 한국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이주민들의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국내 한국인들은 그들 고유의 적응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국인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1930년에 시작되었다. Hubler(1977)에 의하면 한국인의 acculturation 정도는 미국내 체류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의 문화변용은 미국내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Hurh와 Kim(1984)에 의하면 미국내 한국인의 적응기제는 밀착된 특성을 가진다. 밀착된 적응(Adhesive adaptation)의 개념은 새로운 문화의 한 부분이 이민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network에 추가되는 것이다. 즉 전통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다른 것으로 대치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적응패턴은 소외감이나 좌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이런 종류의 적응기전은 한국인의 윤리적 봉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미국사회의 수용에 한계를 가지게 한다.

## Ⅲ. 국제학생들의 건강문제

Maha(1964)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학생들은 주로 굴절이상, 치과질환, 기생충질환 등이 다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의 압박과 긴장을 자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 아프리카 학생들의 경우는 기생충병, 비뇨생식기질환, 안질환 등으로 고생한다고 Hodgman(1968)은 보고하였다. Torrey 등(1970)의 연구에서도 국제학생들의 건강문제는 주로 스트레스와 미국사회에의 적응에 관계된 것으로 보고했다. 국제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완수하는 데 주요한 요인은 학생의 본국 문화의 배경, 환경적으로 제공된 사회적 기회들, 영어능통정도,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기간 참석 여부 등이다. Torrey 등에 의하면 국제학생들이 겪는 Acculturation에서 오는 심리학적 이상은 의심, 편집성 사고, 불안, 우울증, 신체증상 호소 등이다. 이런 증상들을 가진 국제학생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정신과 서비스를 찾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국제학생들의 문화적인 신념과 본국에서의 정신과의료서비스 경험유무에 관계되어 있다. 심리치료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국제학생들에게 이런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것이며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Anderson과 Myer(1985)의 연구에서는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국제학생과 미국학생의 문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학생들은 대부분 처음 상담서비스 이용 후 다음에 계속된 치료를 위해 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kka(1967)에 의하면 국제학생들의 질병증상을 진단할 때는 정서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정서적인 문제는 가족과의 유대,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권의 강한 가족유대, 학업문제, 경제문제, 사회적 행동, 종교, 법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건강문제와 관련된다. 언어의 장벽은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자-의사간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 Akka는 국제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심리 특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것은 또한 동기유발의 요인으로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Ebbin과 Blankenship(1986)은 1980~1983년에 걸쳐 국제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국제학생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외로움, 우울증,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습관과 환경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Ebbin과 Blankenship의 1988년 연구보고에서는 국제학생들이 미국내 학생들보다 더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 관련증상은 불안(Anxiety), 위염, 두통, 변비증, 우울증, 흉부통증, "No pathology", 복통, 소화성 궤양 등이다. 그리고 국제학생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벽이 되는 요인은 언어, 건강신념, 태도 등이다. 영양, 위생, 재정적인 어려움, 정신건강상담 거부 등이 미국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Ogbudimkpa 등의 연구에서 국제학생과 그들의 가족은 미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불만족한 것으로 보고했다. 국제학생들은 대부분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iller와 Harwell(1983)에 의하면 국제학생들의

4가지 주요 건강문제는 피로(Fatigue), 향수병(Homesickness), 두통(Headaches), 감기(Cold) 등이다. 그리고 국제학생들이 보건의료정보를 얻는 출처는 주로 친구, 전화번호부, 약국 등이다. 즉 대학 보건의료담당자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 정보를 얻

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Owen의 히스파닉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는 재정적인 어려움, 학업문제, 음식 및 기후적응, 향수병, 언어, 기타, 건강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히스파닉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미국내 히스파닉계 소수민족의 빈곤 현상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학생이 재학기간중 1가지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기, 스트레스, 외로움, 두통, 수면장애, 소화불량, 기타, 피로, 안과질환, 체중증가, 치과질환, 귀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3% 정도가 흡연자였다.

Sharif(1994)는 "외국인 학생증후군(Foreign student syndrome)"이라는 국제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보고하였다. 이 증후군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oral aggressive dependency, 소극적으로 위축된 태도, 대화를 꺼리는 태도 등으로 나타난다. 학업적응문제나 재정문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느낌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만연될 때 신체증상이 나타나거나 신체증상이 악화된다. 즉, 적응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국제학생들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부하는 태도이며 단지 신체적인 증상만 노출됨으로써 국제학생이 실패라고 생각되는 느낌없이 계속 기능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보건협회의 국제학생건강요구에 관한 연구 위원회에 의하면 국제학생들은 자기 통제력이 매우 강하여 감정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개발국가 출신의 국제학생들은 미국학생과는 다른 건강문제를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Sharif, 1994).

## IV. 한국학생들의 건강과 적응

### 1. 사회생활

Choi의 1990년 Penn State 캠퍼스내 한국학생 105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Activities with Americans and with Koreans

Activities with Koreans	Activities with Americans			
	Yes		No	
	n	%	n	%
Yes	20	76.9	42	54.5
No	6	23.1	35	45.5
Total	26	100.0	77	100.0

$\chi^2=3.2$  f=1 p>.05

명 대상의 건강요구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사회생활에 관한 문항에서 학생들은 25.2% 정도가 미국인과의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했다. 60.2%의 학생들은 한국인과의 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한국학생들 중 49.5%가 매일 미국신문과 잡지를 본다고 답했으며 15.5%는 거의 미국신문이나 잡지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Table 1).

## 2. 건강 및 적응과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업, 영어, 재정문제 순이었다. 다른 고민으로는 미국사람과 어울리기 힘든 것, 직장얻는 문제, 가족의 병이나 죽음 등이었다(Table 2).

한국학생들이 Penn State에 온 이후로 가진 건강문제는 스트레스(58.1%), 감기(56.2%), 피로(41.9%), 두통(41.0%), 수면문제(25.7%), 소화기장애(21.9%), 치과질환(21.0%), 외로움과 우울

Table 2. General Problems of Korean Students

Difficulties	Mean Ranking
Adjusting to American food	5.2
Adjusting to American climate	5.7
Academic problems	2.6
Ill health	5.0
Homesickness	4.0
English	2.8
Financial problems	2.9
Don't have any problems	4.8
Other	2.5

(20.0%), 안질환(19.0%), 체중증가(16.2%), 아이들의 건강문제(14.3%) 등이었다(Table 3).

Table 3. Health Problems of Korean Students

Health problems	n	%
Stress	61	58.1
Cold/flue	59	56.2
Fatigue	44	41.9
Headaches	43	41.0
Sleeping problems	27	25.7
Digestive problems	23	21.9
Dental problems	22	21.0
Loneliness/depression	21	20.0
Eye problems	20	19.0
Excess gain of weight	17	16.2
Child health problems	15	14.3
Other	10	9.6
Ear problems	4	3.8

\* Not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 105

## 3. 흡연과 음주행동

응답자중 약 27% 정도만이 흡연자였다. 대부분의 흡연자중 48.1%는 하루에 담배 반갑~한갑을 피운다고 답했다(Table 4). 음주문제에서 57.5%는

Table 4. Amount of Cigarettes Smoked Daily

Number of Pack	n	%
Less than 1/2 pack	12	44.4
1/2 to 1 pack	13	48.1
1 to 2 packs	2	7.4
Total	27	99.9

한달에 1~3번 술을 마시며 17.8%는 한주에 1~3번 마신다고 답했다. 음주자중 52.1%는 한번 술을 마실 때 2~3잔 정도의 맥주, 칵테일이나 와인을 마신다고 답했다(Table 5).

Table 5. Amount of Alcohol Consumed Each Time

Amount	n	%
1 or less than 1*	25	34.2
2-3	38	52.1
4-5	6	8.2
More than 5	4	5.5
Total	73	100.0

\* The numbers were based on 1 beer,  
1 cocktail, or 1 glass of wine

#### 4. 건강관리행동

Penn State 대학보건소는 진료 및 입원시설과 응급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일차 보건서비스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보건소의 보건의료 플랜 외에 21.9%가 건강보험에 들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한 사람 중에서는 16.7% 만이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한 보험을 들고 있었다. 응답자 중 약 60% 정도의 학생이 대학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재학기간이 길수록 대학보건의료서비스 이용도가 높아졌다. Owen의 히스파닉 학생들의 의료행태를 보면 재학기간과 대학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관계가 없었다.

응답자중 49.5%는 대학보건소서비스 외에 다른

Table 6. Reference When Locating Private Physicians

	n	%
American friends	17	16.2
Korean friends	60	57.1
Telephonebook yellow pages	54	51.4
Other	13	12.4

\* Not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 105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고 답했다. 한국 학생들이 대학보건소 외에 의료서비스인력을 알아보려고 할 때의 정보출처는 한국인 친구, 전화번호부, 미국친지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의료서비스 이용에 장벽으로 나타나는 요인은 의사소통 문제였다. 영어에 자신있다고 느끼는 학생이 더 대학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보건소 이용을 해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보건소를 이용해 본 학생은 미국보건의료서비스에 더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율도 높으리라고 보여진다.

응답자중 반이상의 학생이 1년에 두번 미만 대학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고 답했다(Table 7). 대학보건소 이용사유를 보면 예방주사, 진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Table 8). 약 22%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보았으며 4.8%만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Table 7. Frequency of Using the University Health Service

	n	%
Less than twice per year	43	68.3
2-3 times	14	22.2
4-6 times	4	6.3
Once a month or more	2	3.2
Total	63	100.0

Table 8. Services Received at the University Service

	n	%
Immunizations/shots	23	36.5
Pharmacy	17	27.0
Routine medical care	19	30.2
Counseling services	3	4.8
Emergency care	14	22.2
Other	17	27.0

\* Not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 63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대학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실(Office of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을 중심으로 캠퍼스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교육서비스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음주, 영양, 성문제, 피임, 개인위생 및 일반적인 건강증진(general health promotion and wellness) 등이다. 응답자 중에서 이 보건교육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보건교육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건소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중 52.4%는 심하게 아플 때만 의사나 간호사를 찾아갔다고 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는 29.8%만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59.6%는 때때로 그들의 요구에 맞았다고 답했다(Table 9).

Table 9. Feelings about the Treatment Received at the University Health Service

	n	%
Always meets my needs	17	29.8
Sometimes meets my needs	34	59.6
Usually does not meet my needs	4	7.0
Don't think it is good at all	2	3.5
Total	57	99.9

대학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 중 60% 정도가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고 답했고 12.7%는 자신의 증상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의사와 약속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건소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인 학생의 다른 문화, 언어, 건강신념 등의 장벽이 있다고 보여진다. 대학보건소 외에 다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학생들은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도 하였다.

대학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학생들

의 이유는 29.3%는 잘 몰라서였고, 언어문제로 인한 염려,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심, 약속시간을 정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 비용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것 등이었다. 대학보건소 이용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대한 자신감과 관계있었다.

그외에 일반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학생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운동, 적당한 수면, 금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General Health Behaviors of the Respondents

	n	%
Diet	15	14.3
Not smoking cigarettes	39	37.1
Doing nothing	10	9.5
Taking medicine	18	17.1
Not drinking Alcohol	15	14.3
Exercise	79	75.2
Moderate sleeping	54	51.4
Other	2	1.9

\* Not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 105

## V. 결 론

미국내 국제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학생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학생들은 그 출신국과 문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스트레스 및 적응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쳐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게 한다. 따라서 국내 대학교의 보건관계자들은 국제학생대상의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시에 국제학생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적응문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문제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미국대학내 한국인의 적응문제 및 건강문제도 일반적인 국제학생들의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의 연구에서 한국학생들은 보건교육에의 정보에 매우 어두운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것은 그들이 한국에서 있을 때 대학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캠퍼스내의 보건교육경험이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미국대학보건소측의 국제학생을 위한 보건교육홍보에의 관심이 증가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보건교육 외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안내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제학생의 비율이 매우 적은 한국내 대학의 경우에 국제학생의 보건문제가 대학보건관계자들에게는 큰 우려가 아닐 수도 있으나 미국의 대학캠퍼스내의 국제학생들에 대한 보건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참고하여 한국대학내의 보건관계인들도 캠퍼스내의 학생보건관리 및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1. 문교부: 국외유학생명부, 1985.
2. Akka, R.I., The middle eastern student on American campu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5(3), 1967, 251-254
3. Anderson, T.R. & Myer, T.E., Presenting problems, counselor contacts and 'no shows': international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6), 1985, 500-503.
4. Bogardus, E.S., Cultural pluralism and accultura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34(2), 1949, 124-129.
5. Choi, E.: Health needs assessment of Korean students a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1990.
6. Ebbin, A.J. & Blenkenship, E.S., A longitudinal health care study: International versus domestic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4(4), 1986, 177-182
7. Ebbin, A.J. & Blenkenship, E.S., Stress-related diagnosis and barriers to health care among foreign students: results of a surve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6(6), 1988, 311-312.
8. Gullahorn, J.T. & Gullahorn, J.E., An extension of the U curv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Issues, 19(3), 1963, 33-47.
9. Hubler, W.H.: The acculturation of South Korean immigrants in a suburban community of a large city in Northeastern United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1977.
10. Hurh, W.M. & Kim, K.C., Adhesive sociocultural adapt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S.: an alternative strategy of minority adapt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2), 1984, 188-216.
11. Hodgman, C. H., African political activities at an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7(2), 1968, 119-125.
12. Lundstedt, S., An introduction to some evolving problems in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19(3), 1963, 1-9.
13. Lysgaard, S.,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7, 1955, 45-51.
14. Maha, G.E., Health survey of new Asian and African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2(3), 1964, 303-310.

15. Miller, D.F. & Harwell, D.J., International students at an American university: health problems and status. *Journal of School Health*, 53(1), 1983, 45-49.
16. Ogbudimkpa, J.E., Creswell, Jr. W., Lambert, B., & Kingston, R., Health needs assess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families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6(6), 1988, 313-316.
17. Owen, M.: A needs assessment of the Hispanic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MA, 1988.
18. Sharif, B. A., Discussing the needs of a neglected population: adjustment problems and health issue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5(5), 1994, 260-265.
19. Surdam, J.C. & Collins, J. R., Adapt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 cause for concer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3), 1984, 240-245.
20. Teske, Jr. R.H.C. & Nelson, B.H., Acculturation and assimilation: a clarification, *American Ethnologist*, 1(2), 1974, 351-367.
21. Torrey, E.F., Van Rheenan, F.J., & Katchadourian, H.A., Problems of foreign students: an overview,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19(2), 1970, 83-86.
22. Tyhurst, L., Displacement and migr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7(8), 1951, 561-568.

**〈Abstract〉**

## **Korean Students' Health and Adjustment in the United States**

**Eun Jin Cho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health and adjustment issues of Korean student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tudents' health in the United State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In addition, more and more Koreans come to the United States for education. Korean students formed the fifth largest international group found on American campuses. As more and more international students study on American campuses, their health needs and problems became a concern to health professionals. Most health problems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 are stress related and psychosomatic. These students also have difficulties in using health care services. International students face barriers to obtaining health care because of differences in language and differences in cultural beliefs toward health. Korea manifests an eastern cultur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western culture, so many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difficulties in adjustment and using health care services. The study on the needs of Korean students in the U.S. reviewed in this research was a survey of 105 Korean students a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90. Korean students' health problems included stress, colds, fatigue, and headaches. Homesickness, financial problems, and academic problems were also important problems the Korean students faced. Korean students usually did not participate in any activities with Americans as much as with Koreans. Most Korean students did not participated in any health education workshops held on campus. This may be because the students had not participated previously in health education workshops conducted on campuses in Korea. Korean student's confidence with the English language appeare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using or not using the university health services. University health professionals in the United States need to develop better inform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so that they may better use the health services provided on campus. Also, university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on campuses in Korea need to put more attention on health of college students and provide on-campus health education workshops which meet the student's needs.